

社說

지방선거 當選者들에게 바란다

포천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원 및 포천시의회에 당선된 후보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비록 낙선은 했지만 그동안 고생한 후보들에게도 용기와 위안의 말을 전한다.

이제 지방선거는 끝났다. 시민들은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이 과연 우리 포천시를 위해 얼마만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16만 포천시민들은 공직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전방적인 여론이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다.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뽑아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은 어떤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최적의 인물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다.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와 축근들은 환호하고 좋아하겠지만 시민들은 한동안 허탈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과연 자신들이 선택한 인물이 포천시의 미래를 위해 적합한 인물인가에 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선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16만 시민들을 위해 公僕(공복)을 자처한 당선자들에게 3가지 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는 약속을 소중히 아는 사람이 되어 달라라는 것이다. 약속은 곧 상호간의 믿음이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개인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간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약이라는 형태로 선거 운동 기간내내 시민들과 약속을 해 왔다. 이제 당선되었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행동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 약속과 믿음 그리고 신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지역화합을 이루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포천지역은 유난히 소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폐해 또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원인이야 무엇이든간에 지역 간 화합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먼저 오피니언 리더들간의 화합을 강조하고 싶다. 시민들은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선출할 때 시민과 시를 위해 힘을 합쳐 일해 달라고 주문한 사항이다. 오피니언 리더들간의 힘과 과반싸움으로 일관한다면 포천 지역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진다. 이제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겐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서로의 역할을 합쳐 지역의 현안문제를 풀어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는 자치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에 주력해 달라라는 것이다. 요즘 지역경제는 바닥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 대외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동안 포천시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왔던 업종들은 사양길에 들어서 있고, 관광 포천을 시장목표로 삼고있지만 관광객 수요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있는지 당선자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포천시장 · 경기도의원 후보별 득표현황

경기도의원 이우형 이주석 當選

이우형, 초반 열세 극복 뒤집기 성공 이주석, 후보등록부터 줄곧 앞서 압승

포천시장 후보별 득표현황

Table with columns: 읍면동,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우리당, 한나라당, 무소속, 흥천기, 박윤국), 무효투표수, 기권수. Total rows: 16.

경기도의원 포천시 1선거구 후보별 득표현황

Table with columns: 읍면동,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우리당, 한나라당, 무소속, 이우형, 이주석, 오병익), 무효투표수, 기권수. Total rows: 16.

경기도의원 포천시 2선거구 후보별 득표현황

Table with columns: 읍면동,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우리당, 한나라당, 무소속, 이희승, 이주석), 무효투표수, 기권수. Total rows: 16.

경기도의원 포천시 제1선거구에 출마한 이우형 한나라당 후보가 열린우리당 박윤영 후보와 무소속 오우석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선거운동 초반 현직 오병익 후보에 뒤지는 양상을 보이다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 이후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오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개표결과 부재자투표를 비롯한 군내면, 신북면, 포천동, 선단동 등 8개 읍면동 지역에서 다른 8명의 후보보다 월등히 앞서 나갔다. 포천동 지역에서 오병익 후보가 앞설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우형 당선자가 크게 앞서 결국 경기도의원에 당선됐다.

최종 개표결과 총 투표수 2만7천405표 중 무효 560표를 제외하고 이주석 당선자 1만8천114표(67.5%), 이희승 8천731표(32.5%)로 압승을 거두었다.

하승만 기자 form66@paran.com



경기도의원 포천시 제1선거구 한나라당 이우형 당선자가 당선직후 기념촬영.



경기도의원 포천시 제2선거구 한나라당 이주석 당선자가 당선 기념을 만끽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2000. 8. 18 등록'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URL.

대진대학교 보직교원 인사

- List of faculty appointments including 교무처장 황희호 교수(철학과), 학생처장 신강호 교수(문화예술대학원), 기획처장 배기목 교수(도시공학과), etc.

- List of faculty appointments including 경영대학원장 정재화 교수(행정학과), 법무행정대학원장 정재화 교수(행정학과), 통일대학원장 양무득 교수(교양과), etc.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은 전국 最高의 지역신문

www.ipcs21.com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의 시정(市政)을 해설·소개하고 시내(市内)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간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입금계좌 : 농협(585-02-172934) 예금주 : 최호열/포천신문

Large table listing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포천신문' (Pocheon News) from 2000 to 2006, including issue numbers and dates.